

高麗歌辭「動動」解說考究

高 永 鎮

一. 高麗歌辭「動動」의 解說

二. 高麗歌辭「動動」의 概觀

一. 高麗歌辭「動動」의 概觀

高麗의 詩歌로서 오늘에 傳하는것은 動動 雙花店 西京別曲 靑山別曲 處容歌 滿殿春 履霜曲 鄭石歌 思母曲 가시리 井邑詞와 鄉爪亭曲이 있다.

이들은 그 作者와 著作年代가 모다 不明한 것으로 말하자면 누가 지은지도 물으게 民間에 口傳하여 오다가 後世에 國字가 發明이 되니 비로소 文字上에 再現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傳함이 原作 그대로인가 아닌가는 極히 疑心스럽다.

또 뿐만 아니라 李朝가 立國하자 高麗의 歌樂에 對하여는 大整理를 政行하였기 때문에 그 整理에 犧牲되지 않고 남은것이라 한다면 李朝의 立國精神에 依하여 多分 改作이 되었으리라는 疑心도 없잖아 있다.

그러나 또 그 中에는 整理에 아모關係됨이 없이 民間으로 流傳하였던 것도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지금 남아있는 高麗詩歌에는 얼마되지않지마는 大端히 複雜한 事情이 있는것인데 지금 그 中 樂學軌範에 실리어있는 動動에 對하여 概觀하여보겠다. 動動은 合浦萬戶 柳灌이 威惠가 있어 日本軍이 順天 長生浦에 侵入하였을때 柳灌이 赴援하니 日軍이 倅

우지도 않고 바라보자 風漬하였음으로 軍士가 이 노래를 불며 讚
美하였다는 것인데 高若 그러라고 한다면 柳灌은 恭愍王때 사람이
니까 따라 이 動動은 恭愍王때의 作品이라고 할수 있을듯이로 생
각된다.

그러나 또 그때 軍士가 合唱하여 불었다고 한다면 그때 그들이
지어서 부른것이 아니라 前부터 傳해 오던것을 口傳 하여서 불렀
다고도 生覺되니 반드시 恭愍王때의 著作이 아닐 것이고 一種의 民
謡와 같은 것으로 高麗時代에 流行되었던 것이라고도 생각할수있다.

그는 如何든 本歌는 長歌로 되어 있어 後世의 月令歌와도 같이
正月로부터 十二月에 이르기까지 그 月을 當하면 그 달에 새로운
懷抱를 敘述한 것이다. 高麗歌辭中 樂學軌範에 실리어 있는 動動은
麗代에 流行된 一俗謡이니 全篇 十三聯으로 되어있고 首聯은 序詞
요 남은 十二聯은 正月로 부터 十二月까지 月令體로 되었다. 그
가운데 序聯은 樂志 所說대로 頌禱의 辭요 二月 三月 五月의 各
聯이 亦是 님에 對한 頌揚 祝禱의 뜻을 가졌고 其他 諸聯은 戀情
을 노래 하였다.

노래이름 「動動」 이란 노래 가운데의 後歛 「아으 動動 다리
」에 依함이니 動動의 語義는 星湖의 說(星湖사說卷四)대로 북소리
를 흥내면 鼓聲동동 곧 鏜鏜에 不外한다.

「動」의 古音은 「鏜」(梁柱東先生說)

動動者 今唱優口作鼓聲 而爲舞節者也 動動猶동동也。(星湖사說卷四)

動動曲 翰林別曲者 麗朝所撰也。(芝峯類說)

樂師由東嶺入 置牙拍於殿中 左右舞妓二人 分左右而進 取牙拍跪舉而
還置 起立歛手足 跪而伏 樂奏動動中機 諸妓仍唱詞擊拍 兩妓跪執牙拍

歛手起立 從擊拍之聲 北向舞對無 又北向舞背舞 還北向而舞 隨每月詞
變舞 進退而舞 樂師因節次遲速 越一腔擊拍 兩妓歛手 前置牙拍於本處 歛
手起立 足도깨면伏興 足도而退 樂止 樂師由東영入 取牙拍而出。
(樂學軌範卷五鄉樂呈才)

二 高麗歌辭動動的解說

解說에는 語義 意譯 參考의 三個項目으로 區分하여 考察했고 語
義에서 重要單語의 語意 및 語法等을 解註하였고 意譯에는 通譯을 했
으며 參考에는 必要한 事項을 說明해 놓았다.

解釋에는 各說을 綜合하여 穩健을 取하였으니 時間的 關係 및 資
料蒐集의 未備로 因하여 濟州方言과 古語와의 比較考察을 못한 것이
大端한 遺憾으로 生覺하는 바이다.

原來 古典의 解讀에는 各地方의 方言이 研究登場해야만 비로소 比
較考察도 確實한 考證을 할수있는 것이다.

앞으로 一層더 方言蒐集 할과 同時에 古典과 方言과의 比較考察
할것을 말해둔다.

高麗歌辭中 分段된 各節에 後歛句가 붙은것……動動 西京別曲 靑
山別曲 雙花店 가지리 井邑詞中 月令體로 되어있는 動動에對하여 濟
州方言과의 比較考察을 除外한 語義 意譯 參考別로 解說하였다.

序聯

1	2	3	4
德으란	곰비에	받잡고	
	5		
福으란	땀비에	받잡고	
	6	7	
德이여	福이라	조닐	
8	9	10	
나으라	오소이다		
11	12	13	
아으	動動	다리.	

語義

- 1 으란(目的格指定助詞 『을란』吏讀『乙良』現俗音『을랑』의略)
- 2 곱(後의 古語)
- 3 에(終名詞下에서 쓰이는 方位格助詞)
- 4 받줍(獻의똥 줍은 ㄷ, ㅅ, ㅈ, 받침下에서 쓰이는 謙讓辭)
- 5 림(前의 古語 『림』의 誤綴)
- 6 여(感嘆接續助詞 助詞『여』는呼格 疑問 接續의 三種 用法이 있는데 모두 感嘆의 語義를 띄었다.)
- 7 호늘 = 「혼을」 곱 「혼」의 目的格形 「하는것을」의意
- 8 나오 = 「나스」의 近綴 「나△」(進)의 調音素連結形
- 9 라 = 志向을 나타내는 志向助詞
- 10 오소 = 오사이다 「소이다」는 「수이다」의 雅語體이며 敬稱終止助詞
- 11 아으 = 感嘆詞
- 12 勳勳 = 古音 「쿵쿵」 복소리의 擬音(現今 歌唱에도 「두리쿵쿵」 「얼까 쿵쿵」 따위로 慣用됨)
- 13 다리 = 樂器의 소리에 依한 擬音(다리 다리 두리는 古來後敍에 慣用됨.)

意譯

德은(德을랑) 뒷배에 받아들고 福은(福을랑) 앞배에 받아들고 德이여 福이여 나아가(進) 이리로 오십소서 아아 쿵쿵 다리.

參考

- (1) 「勳勳」序聯 番號는 註譯을 달기爲하여 記載하였음.
- (2) 本題의 解說에는 大部分 現東國大學院長 無涯 梁柱東先生 學說을 主로 삼았다.

正月 ㅅ 나뎃 ㅁ 른
 아으 4 어저 5 녹저 6 후는디

7	8	9
누뵈	가은뵈	나곤
10	11	21
몸하	호을로	넬셔

아으 勳勳 다리。

語意

- 1 ㅅ = 持格促音
- 2 나뵈 = 내(川)의古體「ㅅ」은 持格促音
- 3 모은 = 물(水)은
- 4 어저 = 얼려 얼고져
- 5 녹저 = 녹으려 녹고져
- 6 하는뵈 = 하는베
- 7 누뵈 = 누리「世」의古語體「ㅅ」은 持格促音
- 8 가은뵈 = 가운데(中)「뵈」는 方位格(處所格)助사
- 9 나곤 = 나「出生」의意 나고는 났으니 「곤」은

接續助詞

- 10 몸하 = 몸(身體)「하」는 尊稱呼格助詞
- 11 호을로 = 「獨」홀로
- 12 넬셔 = 낼은「行」이니 넬것이어 곧 갈것이어「르셔」는 通例感嘆法
이나 여기선 原意대로『=것이어』

意譯

正月의 냇물(계울물)은 아아 얼려 녹으려 하는베 이 넓은 世上
에 나서 내 身勢야 외로히 가는구나 (세상에 나서는 몸아 호을로
갈 것이어) 아! 두쿵쿵

參考

- (1) 내身勢여 이 넓은 世上에 태어나서 호을로 외로히 가는구나.
- (2) 江水의 半氷半釋을 起興한 것은 그 薄氷의 危險을 말할것.

1 2
 二月^ㅅ 보^ㅅ로^ㅅ매
 아^ㅅ으 노^ㅅ피^ㅅ 현^ㅅ 燈^ㅅ 불^ㅅ 다^ㅅ호^ㅅ라
 萬人 비^ㅅ취^ㅅ실^ㅅ 즈^ㅅ이^ㅅ샤^ㅅ샤^ㅅ다
 아^ㅅ으 動^ㅅ動^ㅅ 다^ㅅ리.

語義

- 1, ㅅ = 持格促音
- 2, 보로매 = 보롬에(望) 『매』는 『롬』의 『ㅁ』이連綴된處所格助詞
- 3, 현 = 『려』(獸火)의 連體形 불을 려다(古語) 現語은 『켜다』를 『학다』로 불렀다.
- 4, ㅅ = 持格促音 (所有格)
- 5, 다호라 = 『다』는如의意 『다호라』는 『다호라』(다음다 다위라)의 雜語 感嘆形
- 6, 즈이샤샤다 = 『즈이』는 『즈△』의轉音 곧 『△』은 近世語엔 容貌姿態乃至 行動等を 汎稱하나 그 原義는 『容貌 얼굴모양』에 限한다.

意譯

二月 보롬날 아아 높이 켜는 燈 불 갈아라(갈구나) 모든 사람들을 비취실 양자(姿態 容貌)를 지냈도다 아 두둥두둥

參考

- (1) 本聯은 燃燈會(佛敎法事의 하나)의 『높이 켜는 등불』로 起興하여 님의 양자(△)를 頌揚한 辭이다.
- (2) 二月十五日에는 『東國與地勝覽』과 『東國歲時記』에 濟州島에는 二月逆日부러 望日까지 燃燈하는 古俗이 있었다고 하였고 現在에도 嶺南地方에는 『영동 할머니』를 一日에 맞아 十五日에 하날로 보내는 民俗이 있다.

(3) 麗代 二月望日 燃燈의 習俗이 있었음。

三月 ¹ 나며 ² 開한 ³
 아오 ⁴ 滿春⁵ 돌 ⁶ 윗고지여
 4 ⁵ 7 ⁶ 보⁸ 돌 ⁶ 즈은
 7 ⁸ 디너 ⁸ 나샤⁸ 사다
 아오 動動 다리。

語義

1. 나며 = 經過하면서 지나면서
2. 滿春⁵ 돌 = 滿春은 晩春의 俗書 滿春⁵ 돌은 晩春⁵ 돌 곧 三月
3. 윗고지여 = 윗은 의엿(李)의 縮音(音律數의 關係?) 『고지여』는 꽃(花)의 感嘆法呼格
4. 7 ⁶ = 남의 다른사람이
5. 보⁸ 돌 = 『볼』은 美의 뜻 『보⁸ 돌』은 볼의 雅語形 『보⁸ 돌』의 連體形 (이 말은 近世에 變語化하고 오직 그 形容詞形 『부러워』 (부러워) 및 動詞로는 『부러워하』가 쓰일뿐이다.)
6. 즈은 = 즈을 [△] 의 近綴 곧 『즈△』의 目的格形 얼굴을
7. 디너 = 가져, 가지고
8. 나샤⁸ 사다 = 나(出, 生의意) 곧 낳아 出生하다 나시었다.

意譯

三月 지나면서 (三月이 되면서) 곧 피어난 晩春⁵ 달 (三月) 오얏꽃 (李花)이여 너는정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아름다운 모양을 지어고 (라고) 갔구나 아 두릉릉

參考

(1) 結局 이聯은 單純한 敘景이 아니라 오얏꽃으로 起興하여 남의 양자를 頌揚할 辭이다.

- (2) 남의 부러워할 즈△(容貌)을 타고 났고나! 녀은 오얏꽃과 녀
을 比유對照하여 부른 노래
- (3) 崔英朝氏는 滿春을 잊고지여를 滿春 을 잊고지여로 잃어 물
잊고지여=다래꽃아 (다래는 蔓生落葉植物인데 줄기로 쏠쟁이
를 띤든다. 곧 등梨의 꽃이라고 解釋한바 있으나 등花를 물
잊꽃이라고 읽은 論證에 疑問을 품는다. 또한 물은 滿春에
붙어 滿春을=晚春을二. 三日을 뜻한 것이라 보는것이 妥當치
않을까 生覺된다.

1
四月 아너 너지
2 3
아오 오실셔 꽃고리 새여
4 5
므슴다 錄事너곤
6 7
메스나톨 닛고진더
아오 動動 다리。

語意

- 1, 너지=잊고서『넛』(忘)의 副詞形 古語엔『用言+』가 副詞로 汎
用됨
- 2, 오실셔=오실사. 感嘆法
- 3, 꽃고리=피고리
- 4, 므슴다=어찌라. 疑問法 무슨까답인가.
- 5, 錄事너곤=錄事님은 錄事=官名으로 曷宗代以來의 七品官『門下錄
事』가 있으나 여기의 錄事는 吏屬으로서의 그것이었다『너곤』
의『곤』은 連體形
- 6, 메스나톨=옛날을 『을』은 메스날의 目的格形
- 7, 닛고진더=잊고 계시단 말가.

意譯

四月을 잊지않고 날아오는 아이 피꼬리새여! 어찌하다 너는 지나간 옛날을 잊고 계신단 말이나 아이 동동 다리.

參考

(1) 四月을 잊지않고 날아오는 피꼬리를 보고 너를 生覺하여 지은 노래다. 피꼬리로 옛일을 잊지않고 찾아 오거늘 우리님(錄事며술님)은 어찌면 그렇게도 야속하단 말이나! 정말 너는 지나간 그 옛날을 그렇게도 잊어버리고 계신단 말이나.

(2) 語句考

『므슴다』를 『無心하다』로 解釋하는 이가 있으나 이것은 당지로 많은 解釋이다. 『므슴』副詞로 俗綴『므슴』이나 『므슴』이 正綴이다.

㉠네 므슴 지름 하리오。(月印)

㉡므슴 方便을 지스어(作何方便) (圓覺經上)

『므슴』은 原來『므스+므』의 名詞形이다.

『므스』 「語根」諸形을 要約하면 아래와 같다

므-므스	므스ㅎ	{	므스기-므슴	(名詞)
			므서스-므섯-므엿	(名詞)
			므스스-므숫-므웃	(形容詞)
	므스ㅁ	-므슴	(名, 形, 副)	(麗語箋註P100)

五月五日 ¹아으 ²수뉘날 ³아흠藥은 ⁴받좁노이다

2, 으뉘뉘 長存하샤리 藥이라 받좁노이다

아으 動動 다리.

語義

1 수뉘날=수리+날 수리=端午 端午날 곧 五月五日 『릿』의 『시』은 持格促音

2, 으뉘뉘=으뉘(千)+뉘(히+리) 곧 千年을

는지라 ¹넘에게 ²이藥을 바지나이다」라는 뜻이다.

六月¹ ²사³ ⁴보름⁵에 ⁶다오라
 7 ⁸아오 ⁹별해 ¹⁰보름¹¹빛 ¹²다오라
 13 ¹⁴도라보실 ¹⁵너물 ¹⁶적곰 ¹⁷좃니 ¹⁸노이다

아오 勳勳 다리

語義

- 1, 2 = 持格促音
- 3, 4 = 「보름」의 「ㅁ」連綴인 處所格助詞
- 5, 6 = 별해 = 별해의誤綴 水에에 「별」은 「별/벼벼리」의 縮音 「해」는 助詞 介入된方位格助詞
- 7, 8 = 보름 = 버리는 (棄・捨)
- 9, 10 = 빛 = 줄
- 11, 12 = 다오라 = 갈아라
- 13, 14 = 도라보실 = 「男便이아내를 안물아보다」의 「도라보」
- 15, 16 = 너물 = 너물 「물」은 「넘」의 「ㅁ」連綴인 調音素 (媒介母音) 介入된 目的格助詞
- 17, 18 = 적곰 = 조곰. 少時. 잠깐. 「적」은 「少」그대로 副詞(与語엔 用言基本形이 그대로 副詞형) 곰은 副詞添尾語
- 19, 20 = 좃니노이다 = 좃아가노이다 「노」는 現在進行形 「ㄴ」의 雅語形

意譯

六月十五日에 아아 물가(水邊) 벼에에 버린 빛 갈구가 물아보실
 너물 잡시 동안 좃습니다 아아 勳勳 다리

參考

- (1) 本聯의 大意는 「流頭 浴髮에 내버린 빛」으로 起興하여 「물아보실 너물 잡시 좃니」다가 언뜻 버릴때되는 하염없는 사

땅을 슬러함이나 直유의 妙와 情思의 속々함을 아울러 알것
이다. (麗詩箋註 P. 111)

- (2) 六月十五日에는 流頭란 舊俗이었다. 이 風習은 確實히 알수
없으나 慶州에서 始作되어 高麗에 流行된 畧을 알수있다.

「빗을버리는」習俗은 生覺컨대 그當時 男女들이 惡한것을 버릴
다는 뜻으로 東流水에 머리감고 또는 瀑布에 散髮할때 또는
한뒤에 그때 使用한 빗을 물가 (水에 斷岸)에 내버렸다. 平
素에 粧具로 愛重히 여기던 빗이 이날엔 사뭇 「집신작」 처
럼 버림을 받는것이다.

- (3) 이 六月 보름날 「빗내버리는」風習에 比유하여 잠시 님의
사랑을 받다가도 저 보름날 버리는 「빗」처럼 버림을 받는
하염없는 사랑의 서툰을 읊은 노래이다.

(4) 『流頭』風習에關한文獻

(一) 六月十五日 沐髮於東流水 祓除不祥 因會飲 或於瀑布 散髮
承之以祛風眩 謂之打頭會。 (中京志 卷二風俗)

(二) 이밖에 東國歲時記, 麗史 卷二十, 明宗 十五年條에도 이 『
流頭』에 關한 記錄이 실려있다.

1 2
七月[△] 보름에
3 4
아으 百種 排[△]야 두고
5 6 7 8
너를 혼[△]디 너가져 願은 비읍노이다

아으 動動 다리

語義

1. △ = 持格促音(所有格)
2. 예 = 『보름』의 『ㅁ』連綴된 方位格(處格)助詞
- 3 百種 = 七月十五日은 百中 或은 百種日 이라하여 百味珍需를 말

며 놓는것이 佛教社會의 高麗의名節行事이었다.

4, 排^ㅍ야=차며 排設

5, 니물=입을『물』은『님』의『口』連綴로 調音素(媒介母音)介入된 目的格助詞

6, 곳터=한곳에『同』의意 함께더부터『터』는 處格助詞

7, 너가져=가고져

以上「니물 곳터 너가져」는「님과한곳에 가고져」로 佛前祈願의辭

8, 비움노이다=비움나이다『노』는 現在進行形『느』의 雅語形 意譯

七月 보름에 아아 百種排를 다 해두고 님을 한테 따라 가고자 願을비움나이다 아아 勳勳다리

參 考

七月 보름날을 百種 或은 빅7유0이라함. 原義는 아마「百果百味」일 듯 舊俗에 이날 佛寺에선 孟蘭分會로 齋를 울리어 民家에선 저녁에 蔬果酒飯을 갖초아 亡親의 魂을 招함.

八月¹ 보름에

아으 嘉排 나 리마달

니물²의셔 너곤

3 오늘날⁴샤 嘉排샤사다

아으 勳勳 다리

語 義

1, 嘉排=가위 한가위 秋夕

2, 너곤=가네 가네

3, 오늘날샤=오늘날의『날샤』의『샤』은 持格促音

4, 샤사다=尊稱感嘆詞(尊稱助動詞『샤』+感嘆助詞『사다』)

意譯

八月 보름은 아아 秋夕 가윗날이 건만 님을 모시고 가니 오늘
이 참말 秋夕이로다 아아 動動 다리 (두둥둥)

參考

嘉俳=嘉俳節 가위 한가위 秋夕『가비』는『가-빙-오』型 轉音에 依
하여『가비-가빙-가외』로 轉하고 最近에 다시『가위』로 俗傳되었
다。新羅 第三世 儒理尼師今 때에 國內의 女子들을 宮內에 돌아놓
고 두견에 나누어 七月十五日부터 八月十日까지 길쌈을 시키고 八
月十五日에 그 많고 적은것을 比較하여 진편에게 술과 밥을 내게
하고 온갖 놀이를 다 하여 이것을 嘉俳라 한것으로 부터온것이다。

九月 九日¹

아오 藥²이라 먹는 黃花

고지³ 안해⁴드너

새셔가⁵ 만호애라⁶

아오 動動 다리

語義

1. 애=方位格(處格 處所格)助詞
2. 먹논=먹는『논』은『먹는』의 雅語形
黃花=九月九일에 黃菊花를 藥으로 먹는 舊俗
3. 고지=꽃이 꽃이
4. 안해=안에 집안에 『해』는 助詞 介入된 方位格助詞
5. 새셔가=歲序가『새』는『서』의俗音記寫『가』는 形態로 보아 吐(助
詞)로 보기어렵다.
6. 만호애라=「晩호애라」 「만」은 「晩」의 音寫 「호애라」는 感嘆法
晩하여라。

意 譯

九月九日애 아아 藥으로 먹는 黃菊꽃이 집안에드니 歲序가 늦구
나 (今年도 저물겠다) 아아 뽕뽕

參 考

- (1) 안해드니=집안에드니 (梁柱東先生說)
제절안에피니 (金台俊님說)

(2) 黃 花

採菊花 爲나¹米亦양²...日花煎³..... (東國歲時記 九月九日條)
十月애 아오 저미연⁴ 보듯 다호라⁵
것거⁶ 버리진 後애⁷
더니실 홀부니 업스샤사다

아오 勳勳 다리

語 意

- 1, 애=方位格助詞
- 2, 저미연=「고기물저미다」의 저민(細切 寸斷)의뜻 連用連體形(후안)
- 3, 보듯=보듯(俗稱 보로쇠-보듯얼매는 白色반點이 있는 赤色小粒 八月秋夕때쯤먹는베 맛이 좀 짭으나 단 맛이 있어 食用에 供함.)
- 4, 다호라=갈이라 갈모다.
- 5, 것거=꺾어
- 6, 홀부니=한분이(一人, 一位)「니」는「나」連綴된 主格吐
- 7, 업스샤사다=없어졌구나구며「샤사」은 尊稱感嘆詞 (尊稱助動사「자」+感嘆助사「사다」)

意 譯

十月애 아아 저며 놓은 보듯갈모다 꺾어버리진 뒤엔 찾아해야할
넌은 없어졌구나 그때 아이두두뽕뽕

參考 (本辭의大意)

보통은 계절인 八, 九月에는 그 열매가 여러 사람에게 嗜好되나 어느덧 첫겨울이 되면 이미 불쏘시개 (柴料)로 켜어 잘라 버리게 되며 아무도 珍重히 여길 사람이 없다. 이에 起興하여 色이 衰하기 위함과 사랑이 믿기 어려움을 노래한 것이다.

1 2 3
十一月시 봉당 자리에

이오 汗삼 두피 누어

4
슬플 수라운더

7 8
고우닐 스스움 널서

이오 動動 다리

語義

- 1, ㅅ = 持格促音
- 2, 봉당 = 房과房재 또는 房과門재 또는 퇴사마루앞에 있는 土間 土階
- 3, 자리에 = 잘 자리에. 「에」는 「ㅣ」母音介入된 方位格助詞로서 母音衝突迴避現象이며 母音連續現象 即 hiatus現象이다.
- 4, 슬플 수라운더 = 설할하은저. 애달비고 쓸쓸 하구나. 『슬플』은 『슬하』(悲)의 未然連体形 「을」은 調音素(媒介母音)介入된 目的格助詞 「수」는 『일, 것, 마』등을 汎稱하는 抽象名사 (그 主格 指定格 目的格 方位格形은 各히 「리시 리산 리술 리서」本條는 그 本影 「수」를 單用한 貴重한 實例) 『라오』는 形容사添尾語 『동』(보드롬 피동 俗音 『뭉』의 雅語形 『뭉』의 俗綴 『슬플수모』는 『可憐 축々의 뜻 現行語 『설할하』(설할한 살림)는 그 訛轉.
- 6, 고우닐 = 고운이를 愛人을 『닐』의 「니」은 連綴이고 「ㅣ」는 主格 「ㅈ」은 目的格
- 7, 스스움 = 스스로 저혼자 『스리』는 「自」의 뜻 副사 『음』은 『음』의

音便「리」이나「ㅣ」母音 아에서 ㅑ이오으로 變하는例

8, 녀서=갈것이어. 疑問感嘆形

原譯

동짓달(冬至・十一月) 추운밤에 방도아닌 봉당에서 아아 錦衾또아
닌 얇은 담 물은 이불(薄衾)을 덮고 누어서 서러웁고 슬피 사라가
는구나 아아 고운넙을 여회고 나 혼자 살아감이어! 아으두둥두둥

參考

(本聯의大意)

넙을여원우 혼자 살림살이의 저막하고 쓸쓸한 心懷를 노래한것, 울
로 누어서 '嘆息하는 그 말속에는 넙을 그리워하는 情思가 넘쳐 울
려 눈물을 禁할수없다.

	1	2	3	4
十二月	ㅑ	분디	남기로	갓끈
	5	6	7	
아으	나술	整잇	겨	다초라
8	6	10	11	
나뉘	알피	드레	얼이노너	
12	13	14		
소너	가재다	므르웁노이다		

아으 勳勳 다리

語義

- 1, ㅑ = 持格促音
- 2, 분디 = 山초(분디 나무는 波形의 무너가 있어 箒의 材料에 適合하며 高麗時代에 이 나무로 箒을 짠아 만들던 習俗이 있었음.)
- 3, 남기로 = 나무로 (여기서 語幹은 그리 簡單히 決定하기 어려우나 이 語幹은 「남」이라고 본다. 그리고 「남」은 그대로 存在할 수 없는 語形이며 古語에서 그대로 單獨으로 使用된 例가 없다. 이제 「남」의 語尾變化 即 Declension을 記載하면 Absolute 「남근」 Nominative 「남기」 Genitive 「남피」 Locative 「남계」

Accusative 「남을」 Instrumental 「남으로」 Comitative 「나모와」
 (李承寧教授著 古典文法 P. 58)

- 4, 잣곤=깎은(削)
- 5, 나[△]을=進上할 「[△]을」의 「△」은 連綴 「을」은 調音素介入된 目的格
- 6, 盤잇=小盤에
- 7, 지=箸 (젓가락)
- 8, 너의=님의 「의」의 「미」은 連綴 「의」는 所有格
- 9, 앞키=앞에
- 10, 드러=들(擧)어
- 11, 얼[△]노니=가즈런히 하노니 「얼리」는 「얼」 (交・合의 使役形)
- 12, 손[△]이=손(客)이 「니」의 「니」은 連綴이고 「이」는 主格
- 13, 가져다=가져다가 가져는 갖(持)의 連用形 「가자」에 「이」를 添加한 副詞形
- 14, 므로옵노이다=(입안에)무옵나이다 「노」는 現在進行형 「노」는 雅語形 意譯

十二月 分지 나무로깎은 고운 힘쌍의箸를 모처럼 정성스며히
 아아 님의 앞에 올릴(進上) 小盤위에 가즈런히 들어얼렸건마는 정
 작 물어야할 님은 물지않고 실없는 어이한 만 손(客)이 가져다가
 입안에 물지 않은가, 야릇힐손 마음대로 되지 않은것은 人生의,
 더구나 사랑하는 이 사이의 數奇한 運命이다. 아아 두몽 두몽

參 考

- (1) 本聯은 人生의 特히 男女間의 情愛의 아이모니를 읊은 聯이
 니 素朴한 比유에 담겨있는 女人의 그지없는 哀態이다.
- (2) 얼이노니=얼(交・合) 「얼・얼이」는 聘계 「娶嫁」의 訓 저물얼
 이다=저물 가즈런히 並置함 (끝) (筆者國文學科 二年)